

年 135억 '원전稅' 중단 영광군 타격

郡稅의 절반, 稅 개정으로 못 받아 재산稅 등 세금소송도 패소 위기

영광군이 영광원전과 거액의 세금 반환 소송에 이어 올해부터 원전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연간 130억원대의 원전 법인세를 3년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쳐 심각한 재정타격이 예상된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2009. 1. 1)으로 기존 전기사업법에 의해 총담부채로 관리해 오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3조 5천여억원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으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 원전의 법인세 환급추진으로 연간 135억원에 이

르는 주민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관리부담금 비용처리에 따른 법인세 환급세액은 향후 납부세액에서 상계처리되고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앞으로 2~3년간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영광군의 최근 3년치 평균 135억원으로 군세의 47.7%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 재산세부과 ▲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등 3건의 관련 소송에 대해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양측의 '세금 전쟁'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는 영광군이 지난 2008년 흥농읍 영광원전 본부, 사택 부지 등 5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자 이를 낮춰달라며 같은 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전은 앞서 2007년에도 원전 본부 38필지에 대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원전은 또 군이 지난 200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4월 도 조례로 개정돼 원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자 1월부터 4월까지 해당되는 46억 4천여만 원의 지역개발세 부과는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법원이 소급 과세는 부당하다며 영광원전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올해 대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영광군은 대법원에서 재산세, 지역개발세 등 두 사건 모두 패소할 경우 영광원전에 87억 7천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영광군은 자치단체 사상 초유의 '세금 폭탄'으로 막대한 재정 운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원전의 법인세 환급 추진으로 연간 135억원에 이르는 주민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에도 합의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3일 무안군 일로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시금치를 수확하고 있다. 향토 노지시금치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15kg 한 상자당 1만원에 팔린다. /무안=최현배기자 choi@

영광 4개 기업 550억원 투자 유치

전남도와 투자협약...건강식품 공장 등 설립

영광에 4개 기업이 55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

전남도는 3일 오후 영광군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정기호 영광군수, ㈜에코 바이탈그룹, 동문글로벌테크(주), ㈜대도, 라인(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에코 바이탈그룹은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일원 2만㎡에 300억원을 투자해 법제유타(유한)가운데 5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활용한 수산물 유통사료와 꽃송이버섯 유산균을 배합한 건강 기능식품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동문글로벌테크(주)는 영광군 대마면 일원 35만8천㎡에 87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건축자재인 대나무 바닥재 제조와 원재료 확보를 위한 대나무 조립시설을 병행,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을 개척한다.

동문글로벌테크는 앞으로 대나무 건축자재 시장이 확대될 것을 예상해 영광에 대규모 대나무 조립시설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영광군에서 추진중인 영림사업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대도는 영광군 군서면 일원 1만㎡에 130억원을 투자해 천연자원을

분류를 활용한 매립토양 분말 소독제와 친환경 포대를 제조한다. 매립토양 분말 소독제는 10여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제품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의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폐축산물과 음식물 쓰레기 매립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황화수소 등을 탈취·흡착·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살처분 매물로 인해 발생하는 토양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인(주)은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5천㎡에 30억원을 들여 생황 폐목, 산업현장 및 건설현장의 폐목재를 톱밥이나 우드칩 등으로 중간 처리해 전주제지 등에 납품한다. /정필수기자 bungy@

함평군 디자인 強郡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 3개 부문 수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한 함평군이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함평군은 (재)한국 공공디자인 지역지원재단이 주최하고 2009 국제 공공디자인대상(IPDA)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 2009'에 3점의 디자인을 응모해 모두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한 '대한민

국 국향대전'이 (사)대한인간공화회회장을, '함평 에코파크'가 (사)지역공동체발전회회장을, '함평 엑스포공원'이 (사)한국도시디자인회회장을 각각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함평군이 기업의 전문인력 유출로만 여겨졌던 디자인을 10여년 전부터 행정에 접목하고 지난 200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디자인 전문인력을 채용, '디자인 콘텐츠타'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부취재본부=최은희기자 hwang@



해남 윤씨家 소장 고문서 집중 조명 녹우당서 학술대회

해남 윤씨가 소장하고(古)문서를 집중 조명하는 '전국 고문서 학술대회'가 최근 조선대와 해남 녹우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고문서학 권위자 50여명이 참석해 해남 윤씨에 대해 전래 오는 문중문헌의 특징을 집중 조명했다.

해남 녹우당 고산 유물전시관에는 현재 보물 제 483호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비문서를 비롯해 3천여 점의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고문서 학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해남 윤씨가 소장 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기 위해 세 계유산 지정 등 연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문중 고문서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고문서의 학술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정기자 hwang@

신안교육청 '자율교과연구회'

8개팀 우수사례 발표회

신안교육청(교육장 나연수)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교육청은 최근 군 교육청 회의실에서 관내 유치원·초등교원들로 이뤄진 '자율교과연구회'의 우수사례 발표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연구회 8개팀은 1년간 연구한 결과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국어사양연구회'는 지난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국어교과 지도 방안과 평가시 사용하는 언어중에서 틀리기 쉬운 것들을 찾아내어 연구함으로써 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을 제시했다.

신안교육청은 도서로 이루어진 지역특수성 때문에 교



원간의 정보교환의 기회가 많지 않음에 따라 월 1회 같은 지역 교사들끼리 모여 학생생활지도와 교과 수업지도 방안, 최신 교육정보 등을 교류하는 '자율교과연구회'(8개팀)를 조직했다.

나연수 교육장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 올해 전면시행될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수업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필기자 wncho@

새 얼굴

"투명행정으로 지역발전 이끌 것"

임정환 진도군수 권한대행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행정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임정환(58) 진도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소신행정으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장 부재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성 출신인 임 군수 권한대행은

목포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8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도 재난상황실장, 민자유치, 자치행정담당, 관광개발과장, 안도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손우인(56)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호남고속철 노선 무안공항 경유를 4개 상의 건의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는 최근 광주·전남 4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호남 고속철도 노선이 무안군 제곡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오는 10월 F1 대회개회를 비롯해 나주 혁신도시, 무안기업도시가 조성되면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수도권, 충청권 주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중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약제
-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상 등 - 개강 : 2월 1일
- 현재 접수 중, 선착순 00명
5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 병원, 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
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입영연기 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
경찰학원의
함박웃음은
계속된다!

원장, 경찰학 박사 김재규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5년) | 1년 회원제 | 6개월 회원제
이론중합반 | 문제풀이반

최고의 시설
KPA 싱글하우스 | KPA 독서실 | 무료 동영상실 |
무료 자습실 | 편안한 휴게실 | 체력단련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 062)236-3112 | 전남여고 후문 앞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http://kwangju.land3.co.kr

전국 최다 합격생 배출한 그학원 LAND3
2010년도 100% 합격보장!!

개강 2월 1일
국비환급 100%

▶ 동영상 무료 전과목(연회원)
▶ 오답 노트 제공
▶ 교재무료 (기본서 6권 제공)
▶ 동영상 강의만(6과목)
(가입시 부터 ~2010.8.31 → 290,000원)

민개공 3인방
- 박홍진 교수(개론)
- 강근호 교수(민법)
- 고상철 교수(공법)

LAND3 529-8838
합격의 새로운 이름

운암동 광암고가 옆 삼에신협 2층

제3종 (자동차 대인·대물)

손해사정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

제1회 보험심사역

개강 2월 1일 * 국비지원 · 고용보험환급
* 농품사시험일 평일반 (2010년 5월9일) 주말반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상담문의 361-8110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은행 2층